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의 생애와 학문

요시모토 하지메(吉本一)*

I. 들어가기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 1872~1967)는 한마디로 말해서 언어의 교육과 연구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다. 현재의 명칭으로 말하면 고쿠가쿠인 대학(國學院大學), 도쿄 외국어대학(東京外國語大學), 도쿄 대학(東京大學), 메이지 대학(明治大學), 와세다 대학(早稻田大學), 고마자와 대학(駒澤大學), 세이신 여자대학(聖心女子大學), 쓰루미 여자단기대학(鶴見女子短期大學) 등 여러 대학에서 일본어, 조선어, 아이누어, 영어 등을 가르쳤다. 또 연구에 있어서는 일본어, 조선어, 아이누어, 류큐어(오키나와 방언), 만주어, 몽고어,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이용하여 수많은 저서와 논문 등 큰 업적을 남겼다.

그의 스승은 우에다 가즈토시(上田萬年)이며, 후배에 신무라 이즈루(新村出), 제자 중에 하시모토 신키치(橋本進吉),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긴다이치 교스케(金田一京助), 오리쿠치 시노부(折口信夫) 등이 있다. 모두 저명하고 쟁쟁한 학자들이다.

아래에서는 우선 가나자와 쇼자부로의 생애를 살펴본 다음에 그의 학문을 살펴볼 것이다. 시대를 고려하여 조선어나 조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 한자 표기는 약자가 아닌 정자를 사용할 것, 나이는 만 연령으로 표기할 것임을 밝혀 둔다.

*일본 도카이대학 국제교육센터 교수

II. 가나자와 쇼자부로의 생애

우선 가나자와 쇼자부로의 생애에 대하여 시기별로 간략하게 살펴본다. 그의 생애에 관한 짚막한 기술은 이시카와(2007), 상세한 기술은 이시카와(2014)에서 볼 수 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특히 이시카와(2014)에 기대고 있다. 현재로서 이것을 능가하는 자료는 없으나 사소한 오류들도 적잖이 눈에 띄었기에 수정하였다.

1. 탄생 - 청소년기

가나자와 쇼자부로는 1872년 1월 13일 오사카(大阪)의 쌀가게 집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겐자부로(源三郎)(1840-1927), 어머니는 지에코(智恵子)(1845-1890)이다. 지에코 역시 오사카에서 쌀가게를 하던 시마 도쿠로(島藤九郎)의 딸이다. 장녀 미치(みち), 차녀 사키(さき), 장남 쇼자부로, 차남 겐노스케(源之助)의 순으로 태어났다. 쇼자부로는 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正三郎’라고 명명되었는데 호적상 한자가 잘못 기재되어 ‘庄三郎’가 돼 버렸다. 그는 본래의 ‘正三郎’라는 표기에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22살 때까지 계속 사용하였다.

누나 두 명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쇼자부로는 특별히 사랑을 받았는데,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이었던 데다가 어릴 때 소아마비에 걸려 성인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는 이때 걸린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평생 한쪽 다리가 가늘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공부하기를 좋아했고 부모도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시켜 주려고 했다. 그래서 다섯 살 때 1877년 9월부터 다이호 초등학교(大寶小學校)를 다니기 시작했다. 또 이듬해부터 하곶길에 서당(寺子屋)에 들러 한문과 주산을 배우게 되었다.

1884년 7월에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그해 9월에는 당시 전국에서 유일한 문부성 직할 학교였던 오사카 중학교(大阪中學校)에 입학하였다. 오사카

중학교는 1885년 7월에 대학 분교(大學分校), 1886년 4월에 제3 고등중학교(第三高等中學校)로 개칭되었으며, 1888년 8월에 교토(京都)로 이전하였다. 이 학교가 현재 교토 대학(京都大學)의 전신이다. 이 학교에는 여러 지역에서 학생들이 모였으므로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 진급 제도가 상당히 엄하여 낙제하는 사람도 많았다. 가나자와도 낙제의 비애를 맛보기도 하였다.

1890년 9월 어머니가 병에 걸려 46세로 타계하였다. 그녀는 쇼자부로에게 반드시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하라고 유언을 남겼다. 쇼자부로는 어머니를 깊이 경모하였으며 이때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하여 큰 상실감을 느꼈다.

설상가상으로 가업인 쌀가게가 도산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간신히 학업을 계속하여 1893년 7월 22세 때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였다.

2. 대학 · 대학원 시절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가나자와는 바로 1893년 9월에 제국대학(帝國大學) 박언학과(博言學科)로 진학하였다. 가나자와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상경하였으며, 제3 고등중학교 동창인 사사가와 다네오(笹川種郎), 아네사키 마사하루(姉崎正治)와 셋이서 집을 빌려 자취 생활을 시작했다.

제국대학은 1886년에 설립된 것으로, 일본에서 유일한 대학이었으므로 단순히 제국대학이라고 하였다. 그 후 1897년 두 번째 대학인 교토 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이 생기고 나서 도쿄 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으로 개칭하였다. 이것이 현재 도쿄 대학(東京大學)으로 이어진다. 박언학(博言學)은 1897년 전후부터 언어학(言語學)이라 불리게 되고, 도쿄 제국대학 박언학과도 1898년 6월에 언어학과로 바뀌었다.

박언학과 학생은 극히 소수였으며, 당시 졸업생은 해마다 한 명 내지 네 명에 불과했다. 졸업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가나자와보다 1년 선배에 사가키 료자부로(榊亮三郎), 동기에 오가와 나오토시(小川尚義), 1년 후배에 후지오카 가쓰지(藤岡勝二), 3년 후배에 신무라 이즈루(新村出), 4년 후배에 야스기 사다토시(八杉貞利), 10년 후배에 하시모토 신키치(橋本進吉), 오구라 신

페이(小倉進平), 이하 후유(伊波普猷), 11년 후배에 긴다이치 교스케(金田一京助), 고토 아사타로(後藤朝太郎) 등이 있다.

1890년 9월부터 독일 유학을 갔던 우에다 가즈토시(上田萬年)가 1894년 6월에 귀국하여 제국대학 박언학과 교수로 취임하였으며 가나자와의 지도 교수가 되었다. 우에다는 너무나 바빠서 휴강하는 일이 잦았지만 학생들을 정열적이고도 적절하게 지도하였기에 학생들의 큰 신뢰를 얻고 있었다. 그래서 우에다의 지도에 따라 학생들의 연구 대상 언어가 정해졌다. 가나자와·긴다이치는 아이누어, 이히는 류큐어, 오구리는 조선어, 고토는 중국어, 오가와는 대만어, 사카키는 범어, 야스기는 러시아어, 후지오카·신무라·하시모토는 일본어(국어)를 연구하게 된 것이다. 당시 일본 박언학(언어학)의 최대 관심사는 일본어와 주변 언어들을 비교함으로써 일본어의 뿌리를 밝히려는 것이었다.

가나자와는 진보 고토라(神保小虎)에게 아이누어를 배웠다. 1896년 5월 3학년 때 『동양 학예 잡지(東洋學藝雜誌)』 176-178호에 「배철러 씨가 만든 아이누어학의 단편(ぼちえら氏創成アイヌ語學ノ一斑)」을 연재하였다. 진보 고토라의 강의를 가나자와가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배철러(John Batchelor)는 1888년 『아이누어·일본어·영어 3개 언어 사전(蝦和英三対辭書 完)』을 펴낸 사람이다. 같은 해 11월에는 진보의 검열을 받고 『도쿄지학협회 보고(東京地學協會報告)』 제18년 제2호에 「아이누 방언 단어집의 교정(蝦夷方言藻汐草ノ校正)」을 발표하였다. 『아이누 방언 단어집(蝦夷方言藻汐草)』은 우에하라 구마지로(上原熊次郎)가 1804년에 펴낸 것으로, 가나자와는 거기에다 당시 발음을 로마자로 병기하였다. 그 후 1905년에 배철러가 펴낸 『아이누어·영어·일본어 사전 및 아이누어 문전(アイヌ英和辭典及アイヌ語文典)』 제2판 서문에서 그 로마자 표기의 잘못이 지적되었다.

가나자와는 1896년 7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9월에 대학원으로 진학하였다. 그해 11월 25살 때 고쿠가쿠인(國學院) 강사가 되었다. 고쿠가쿠인은 1882년에 창립된 황전강구소(皇典講究所) 내에 국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1890년 설립된 학교이며, 1904년 전문학교, 1906년 사립 고쿠가쿠인 대학(私立國學院大學), 1920년에 고쿠가쿠인 대학(國學院大學)이 되었다. 고쿠

가쿠인에서 가나자와는 영어와 음성학을 가르쳤다.

이 시기에 가나자와는 영문 서적의 번역 작업을 하였다. 먼저 A. Darmesteter의 *The Life of Words as the Symbols of Ideas*를 번역한 『말의 생명(ことばのいのち)』을 1897년에 펴내고, 그다음에 A. H. Sayce의 *The Principles of Comparative Philology*를 번역한 『언어학(言語學)』(우에다 가즈토시와 공역)을 1898년에 펴냈다. 이 원서들은 지도 교수인 우에다 가즈토시가 소장하고 있던 것이라고 한다. 또 F. M. Müller의 *The Science of Language*를 요약·번역한 「언어학 단편(言語學一斑)」을 『고쿠가쿠인 잡지(國學院雜誌)』에 1898~1904년에 연재한 뒤에 『언어학 상·하(言語學 上·下)』(고토 아사타로와 공역)를 1906~1907년에 펴냈다. 그리고 1899년 『영어중문전(英語中文典)』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또한 1898년에는 은사인 진보 고토라와 공저로 『아이누어 회화 사전(アイヌ語會話字典)』도 펴냈다.

한편 1897~1898년 『고쿠가쿠인 잡지』에 「외래어에 대하여(外來語に就きて)», 「일본어에 대해 생각하는 것들(國語に就きて思へる事ども)», 「수사의 연구(數詞の研究)」 등의 연구 논문도 발표하였다.

가나자와는 아이누어를 평생 연구 과제로 하려고 결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쿄 제국대학 문과대학 학장이었던 도야마 마사카즈(外山正一)로부터 “아이누어 연구로 먹고살 수 없다”, “조선어를 연구해 보면 어때냐?”라는 말을 듣고 조선어 연구를 지향하게 되었다. 도야마가 문부대신(文部大臣)이 되고 고등중학교 때 은사였던 핫토리 우노키치(服部宇之吉)가 그 비서관이었던 1898년 6월에 가나자와는 문부성 과견 제1회 동양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한국 유학을 가게 되었다.

1898년 9월에 가나자와는 사와이 다키(澤井多喜)와 결혼하였다. 고상하고 웅숭깊고 온화하고 친절한 여성이었다고 한다. 그녀의 오빠 렌(廉)은 1887년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듬해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의 조수가 되었다. 그러다 병이 났고 일본으로 귀국하여 요양한 결과 일단 회복하였으나 1894년 30세 때 타계하였다.

1898년 10월 가나자와는 대한제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여행을 좋아하여 한국 체류 중에 전국을 돌아다녔다. 또 그는 술을 잘 마셔서 한국 사

람들을 놀라게 했다. 1899년 9월 재한 일본인들이 조선회(朝鮮會)를 결성하고 남산동에 조선월보사(朝鮮月報社)를 두고 『조선월보(朝鮮月報)』를 발간하게 되었다. 가나자와는 원고를 모으는 위원을 맡았고 본인도 14편의 글을 실었다. 이 잡지는 제4호까지만 나오고 폐간되었다. 한국 유학 중이었던 1900년 7월 가나자와는 도쿄 외국어학교(東京外國語學校) 한어학과(韓語學科) 교수로 임명되었다. 당시 우에다 가즈토시가 교장 대리를 맡고 있었다. 그해 8월에 가나자와를 조선어 연구로 이끈 도야마가 영면하였다.

3. 순풍의 시기

1901년 9월 대한제국에서 귀국한 가나자와는 도쿄 외국어학교 한어학과 교수로 취임하여 조선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도쿄 외국어학교는 1873년에 일단 설립되었다가 1887년에 소멸되었다. 그다음 1897년에 고등상업학교(高等商業學校) 부속 기관으로 신설되고 1899년에 분리·독립하였다. 이것이 현재 도쿄 외국어대학(東京外國語大學)으로 이어진다.

도쿄 외국어학교 한어학과는 가나자와와 혼다 아리아(本田存)가 주도하는 체제가 되었다. 혼다 아리아는 신생 도쿄 외국어학교 한어학과 제1기생이며 졸업과 동시에 조교수가 됐다. 그는 유도과 수영도 잘하고 그 방면에도 이름을 남겼다. 가나자와가 학문적(언어학적)으로 일본어와 조선어를 비교하는 강의를 하고, 혼다가 회화와 통역에 능하였기에 실무적인 조선어를 가르쳤다(혼다는 그 후 1903년 7월부터 대한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다. 문부성에서 대한제국으로 파견된 것은 가나자와와 혼다 두 사람뿐이다).

1902년 2월에 도쿄 제국대학 언어학과 강사로 임명되었다. 그가 담당한 조선어는 3학년 필수 과목이었다. 언어학과 학생은 수 명밖에 없었으나 다른 학과 학생들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백 수십 명이 수강하였다. 일본어 계통론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았던 것이다.

1902년 6월 가나자와 31세 때 「일·한 양국어 비교론(日韓兩國語比較論)」, 「일·한어 동사론(日韓語動詞論)」이라는 두 논문으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제국 유학 때문에 중단했었던 고쿠가쿠인 강의도 1903년에 다시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가나자와는 박사 학위도 받고, 도쿄 외국어학교, 도쿄 제국대학, 고쿠가쿠인에서 교육과 연구를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나자와는 점점 활동 무대를 확대한다. 1903년 5월 국어조사위원회(國語調査委員會)의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해 가을에 국어전습소(國語傳習所)에서 일본어 문법에 관한 강의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12월 『일본 문법론 전(日本文法論 全)』을 간행하였다. 같은 12월에 메이지 대학(明治大學)이 신설한 고등예과(高等豫科) 강사로 초빙되었으며, 이듬해 9월에는 중국인 및 조선인 유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해 메이지 대학에 개설된 경위학당(經緯學堂)의 평의원으로 위촉되었다.

1904년 9월부터 가나자와는 도쿄 제국대학 언어학과에서 아이누어도 담당하게 되었다. 그해 긴다이치 교스케(金田一京助) 한 명만 언어학과에 입학했는데 학년과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긴다이치의 1년 선배인 하시모토 신키치(橋本進吉),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이하 후유(伊波晋猷), 고토 아사타로(後藤朝太郎) 등과 함께 가나자와의 강의를 들었다. 가나자와는 자신이 강의한 것을 그대로 필기하도록 긴다이치에게 부탁하였으며, 긴다이치는 강의 날 저녁에 가나자와의 자택까지 가져갔다. 가나자와의 강의는 말하는 대로 필기하면 그것이 바로 훌륭한 문장이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일·한 비교 문법(日韓比較文法)’에 관해서는 본인의 원고와 가메다 지로(龜田次郎)가 필기한 강의록이 남아 있다(덧붙여 말하면, 후일 1913년 10월부터 긴다이치가 아이누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1905년 10월부터 1년간 와세다 대학(早稻田大學)에서 일본어 문법에 관한 강의를 했다. 그 강의록이 이듬해 『일본 문법 강의(日本文法講義)』로 간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잡지에 글을 싣기도 하였다.

가나자와는 1907년 4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휴직하고 구미 6개국(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미국)을 순회하였다. 그해에 간행한 독일어 논문 「Über den Einfluss des Sanskrits auf das Japanische und Koreanische Schriftsystem」(일본어와 조선어의 문자에 대한 산스크리트의 영향에 관하여)를 지참하였다. 출항을 기다리는 배 안에서 일본어 사전 『사림(辭林)』의 교정을 마쳤으며 4월 21일에 출간된 책을 런던에서 받아 보았

다. 이 사전은 가나자와가 한국에서 귀국하고 나서부터 편찬하기 시작한 것으로, 친구인 아스케 나오지로(足助直次郎)와,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고토 아사타로(後藤朝太郎), 긴다이치 교스케(金田一京助), 오리쿠치 시노부(折口信夫), 이와하시 고야타(岩橋小彌太) 등 제자들의 도움도 컸다. 이 사전이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오랜 기간 상당히 많이 팔렸다.

1909년 4월부터 5월까지 가나자와는 국어조사위원회로부터 오키나와(沖繩)로 파견되어 류큐어 조사를 하였다.

1909년 7월 『동양협회 조사부 학술 보고 제1책(東洋協會調查部學術報告 第1冊)』에 「일·한 양국어 동계론(日韓兩國語同系論)」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듬해 1월에 이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영문을 붙여서 『일·한 양국어 동계론 전(日韓兩國語同系論 全)』이라는 저서와 그 영문만 따로 떼어 내어 *The Common Origin of the Japanese and Korean Languages*를 출간하였다. 영문 부분에는 조선어 연구로 이끌어 준 도야마 마사카즈에게 바치는 말을 썼다. 영문으로 쓴 것은 물론 이 학설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이다. 일본어와 조선어가 동계라는 학설 자체는 새로운 것은 아니었으나 일본의 언어학자가 주장했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10년 8월에는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다. 이런 미묘한 시기에 민감한 문제를 다룬 논저를 내놓은 것이다.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면서 가나자와는 신문·잡지 등의 취재를 받고 조선의 언어·문화를 소개하는 글들을 썼다. 그는 한일 합방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으나, 조선어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일본어를 강요하는 일에는 분명히 반대하였다. ‘조선어를 하나의 방언으로 인정하고 살려야 한다,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먼저 조선어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두 언어는 원래 한 언어에서 분화된 동계어이므로 상대언어를 서로 배움으로써 자연스럽게 융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그러한 사상은 제자들에게는 영향을 주었으나 사회적으로는 이해를 얻지 못했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언행을 비판하기는 쉽지만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은 평가해야 할 것이다.

4. 역경의 시기

1910년 12월 가나자와는 10년 만에 조선을 방문하였다. 조선의 교육 실정을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1911년 6월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로부터 조선어에 관한 조사를 위촉받았고, 그해 7월과 이듬해 3월에 또 조선으로 출장하였다.

1911년 3월 『조선 서적 목록(朝鮮書籍目錄)』을 간행하였다. 조선에 관한 문헌 자료를 해설한 책으로, 도쿄 외국어학교 졸업식 때 일반에 공개하면서 관람자들에게 배부해 주었다.

1912년 12월 『일본 문법 신론(日本文法新論)』을 간행하였다. 1903년에 간행한 『일본 문법론(日本文法論)』을 더 심화시킨 것이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학교 교과용 교과서 편찬을 의뢰받게 되고, 『여자 교육 일본 문법 교본(女子教育日本文法教本)』(1910/1912/1919년), 『일본 문법 교본(日本文法教本)』(1912/1919/1931년), 『중학교용 국어 교과서(中學校用國語教科書)』(1914년) 등을 펴냈다.

1913년 6월에 『언어의 연구와 고대의 문화(言語の研究と古代の文化)』를 간행하였다. 1910년 1월부터 고쿠가쿠인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이고 『고쿠가쿠인 잡지(國學院雜誌)』에 단속적으로 게재한 원고를 묶은 것이다. 일본어와 독일어로 설명되어 있다.

같은 해 9월 제3 고등중학교 시절의 친구였던 아베 모리타로(阿部守太郎)가 살해당했다. 아베는 전년에 법무국장(法務局長)이 되고 만주·몽고 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기초하였다. 일본이 만주·몽고에 대한 야심을 버리고 평화적 방법으로 경제적 이권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영토 확대를 지향하는 세력으로부터 반감을 산 것이다.

그해 12월에는 『카드식 독사 연표(カード式讀史年表)』라는 이색적인 저작을 내놓았다. 서양·중국·조선·일본의 역사를 세기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14년 3월 조선총독부로부터 위촉받고 러시아·만주·몽고·조선을 방

문하였다. 각지의 언어 상황을 시찰하기 위해서였다. 이 시기에 러시아어와 몽고어를 학습하였다.

가나자와는 일본어와 조선어의 동계론을 먼저 주창한 선구자로서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등을 들었는데, 시라토리는 동계론에서 비동계론으로 입장을 바꾸고 가나자와를 비판하였다. 그 후 가나자와와 동계론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1915년 5월 『일본 외래어 사전(日本外來語辭典)』이 출간되었다. 우에다 가즈토시, 다카쿠스 준지로(高楠順次郎), 시라토리 구라키치, 무라카미 나오히로(村上直次郎), 가나자와 쇼자부로(小澤次郎)의 5명이 편집한 것이다. 시라토리와 가나자와는 동계론을 둘러싼 대립이 있었으며, 도쿄 외국어학교 교장이었던 무라카미는 가나자와를 배제하려고 했었다는 소문이 있다. 또 우에다도 이 때쯤에는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 같다.

한일 합방 시기에는 조선은 일본의 일부였으므로 조선어는 외국어가 아니라고 여겨졌다. 가나자와는 조선어 학습의 필요성을 계속 호소하였으나, 결국 1911년에 개칭되었던 조선어학과는 학생 모집이 정지되고 기존 학생들이 졸업함과 동시에 학생이 한 명도 없어졌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와중 1916년 12월 말 45세였던 가나자와는 문부 대신 앞으로 사표를 제출하였고 이듬해 1월에 받아들여졌다. 표면적인 이유는 뇌진경 쇠약중이었으나, 조선어학과 학생 모집 정지로 인한 충격과 무라카미 교장이 그를 배척하려는 움직임 등의 요인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가나자와는 또 1917년 2월에 도쿄 제국대학 조선어 강사도 사임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아내를 데리고 도쿄를 떠나 교토로 갔다. 가나자와가 사임한 후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혼다 아리아에게 강의를 부탁했는데 학생들이 돈을 부담하는 것은 불쌍하다고 하여 1923년부터 정식 강사가 되었다.

1918년 3월과 1919년 4월 방언 조사 등의 목적으로 또다시 조선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1920년 11월 새로 설치된 조선총독부 임시교과서조사위원회 위원이 되었고, 1921년 3월 역시 새로 설치된 조선총독부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조사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1920년 6월 『언어에 반영된 원인의 사상(言語に映じたる原人の思想)』을

출간하였다. 아이누 민족의 사상을 고찰한 책이다. 조선어 교육 현장을 떠난 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아이누 연구를 하고 싶어진 것 같다.

그다음 1923년 가을에 고쿠가쿠인 대학에서 국어학 교수로 초빙되었다. 오랫동안 학교를 위해 힘써 준 가나자와가 직장을 잃은 데 대하여 관계자들이 배려를 해 준 것이리라.

1907년에 처음 나온 『사림(辭林)』이 크게 개정되어 1925년 9월에 『광사림(廣辭林)』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학교를 사임한 뒤 주로 이 개정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1923년 9월에 관동대지진이 일어나 제판이 모두 소실되었으나 교정지의 일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노력을 기울여 완성하였다.

1927년 12월 아버지 겐자부로가 88세로 타계하였다. 가나자와는 어머니를 깊이 경모했던 한편 아버지에게 대해서는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생활비는 계속 보내 주고 있었다.

5. 재기의 시기

1928년 4월에 가나자와는 고마자와 대학(駒澤大學) 동양학과 국어학 교수로 취임하였다. 1931년에 고마자와 대학 동양학회에서 『동양학 연구(東洋學研究)』를 창간한 뒤 가나자와는 강의 내용을 정리하여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1929년 4월 58세 때 『일·선 동조론(日鮮同祖論)』을 간행하였다. 30년 이상에 걸친 일본어·조선어 비교 연구의 도달점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이 시기 일본인들은 조선에 대해 냉담하게 바라보고 있었으며 두 언어의 동계론도 강하게 부정당하여 직장을 잃었을 정도였으므로 두 민족이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고 하는 학설이 반발을 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공격이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이 믿는 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의도했던 것과 달리 이 이론은 일본인에게도 조선인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면서 그의 핵심적인 주장은 무시당한 채 내선 일체(內鮮一體)·황민화(皇民化) 운동에 적당히 이용당하

게 되었다.

1932년 1월에 가나자와는 환갑을 맞이하였다. 그의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 그가 오랫동안 근무한 고쿠가쿠인 대학에서 축하회, 기념품 증정, 기념논문집 간행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그해 12월에 기념논문집 『가나자와 박사 환갑 기념 동양 어학의 연구(金澤博士還曆記念 東洋語學之研究)』가 간행되었고, 가나자와는 그 사례로서 같은 시기에 나온 『신라의 가타카나 — 비교국어학사의 일절(新羅の片假名—比較國語學史の一節)』을 증정하였다. 신라의 이두와 일본의 가타카나 중 일치하거나 흡사한 것이 많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해 4월부터 세이신 여자학원 고등전문학교(聖心女子學院高等專門學校) 국문과 교수가 되어 언어학 강의를 담당하게 되었다.

1933년 가나자와는 고쿠가쿠인 대학을 퇴임하였다. 이 해 3월에 환갑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다쿠소쿠안 장서 61종(濯足庵藏書六十一種)』도 간행하였다. 그가 그동안 모아 놓은 동양 어학 문헌을 소개한 책이다. 다쿠소쿠(濯足)는 그의 호이며, 다쿠소쿠안(濯足庵)은 그의 집을 가리킨다. 중국 고대 시집 『초사(楚辭)』에 실린 굴원(屈原)의 시 「어부(漁夫)」의 한 구절에서 따온 말이다.

1934년 7월 고쿠가쿠인 대학의 제자이자 동료였던 오리쿠치 시노부와 공동으로 편찬한 『국문학 논구(國文學論究)』를 간행했다. 학생들의 졸업 논문을 조금이라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과거 수 년 동안에 나온 논문들의 일부를 묶은 것이다.

그 후 꾸준히 논문을 쓰고 강연을 하러 다녔지만 오랜 기간 새로운 저서를 내지 않았다. 1939년 9월 1일에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고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패전을 맞이하였다.

6. 노년기 - 별세

1946년 가나자와는 에이헤이지(永平寺)에서 구마자와 다이젠(熊澤泰禪) 선사로부터 득도를 얻었다. 법명은 월강암 선심 무득거사(月江庵禪心無得居士)이다. 이때 수많은 희귀본을 포함한 장서를 에이헤이지에 기증하였다.

1947년 2월부터 아세아 연구 총서(亞細亞研究叢書)를 간행하기 시작했다. 가나자와 혼자서 20권 이상을 집필할 예정이었는데 결국 1949년 5월까지 6권만 내고 중단되었다. 나머지 주제 중 일부는 학회지나 논문집에 발표하기도 했으나 원고를 완성하지 못한 것도 있다.

1948년 4월에 세이신 여자학원 고등전문학교(聖心女子學院高等專門學校)가 세이신 여자대학(聖心女子大學)이 되었고, 가나자와는 계속 강의를 맡았다.

1949년 사립학교법이 공포됨으로써 고마자와 대학도 새로운 제도에 따른 개혁이 이루어졌다. 동양학과가 없어지고, 가나자와는 문학부장 겸 국문학과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는 이듬해 사표를 제출하여 사임하였다.

1950년 제자인 호리구치 게이아(堀口慶哉)에게 부탁하여 그해 9월부터 2년 동안 군마 현(群馬縣)의 사찰 세이코인(成孝院)에 기거했다.

그해 10월 조선학회(朝鮮學會)가 창립되어 가나자와는 고문을 맡아 연구 발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얻었다.

1952년 봄에 도쿄 조코쿠지(長谷寺) 경내에 주거를 얻어 안주할 수 있게 되었다. 1953년 4월에 새로 설립된 쓰루미 여자단기대학(鶴見女子短期大學)에 국문과장 겸 국어학 교수로 영입되었고, 이듬해 4월에는 또 신설된 아자부 아케보노 유치원(麻布あけぼの幼稚園) 초대 원장도 맡았다. 같은 해 고쿠가쿠인 대학 명예 교수가 되었다.

1964년 4월 그동안의 교육·연구에 관한 공로로 인해 국가에서 훈3등 서보장(勳三等瑞寶章)이라는 훈장을 받았다. 그해 6월 쓰루미 여자단기대학에서 축하 강연회가 개최되었고, 긴다이치 교스케와 도키에다 모토키(時枝誠記)가 강연을 하였다.

1966년 3월 20일 저녁에 부인 다키가 89세로 별세하였다. 원래 허약한 체질이자 지병이 있었지만 의외로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 이듬해 5월 31일 오후에 동생 겐노스케가 94세로 별세했다. 그리고 그해 1967년 6월 2일 오후에 가나자와 쇼자부로 본인이 96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도 선천적으로 허약하여 소아마비까지 걸렸으니 그토록 오래 살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가나자와 쇼자부로 내외의 무덤은 각각 에이헤이지와 조코 쿠지에 있다.

가나자와에게 있어 언어의 교육과 연구는 직업이기도 했으나 취미이기도 했다. 그는 죽음 직전까지 교육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왕성한 연구와 집필 활동을 지속하였다. 가나자와에게는 자녀가 없었으므로 그의 자택에 남아 있던 장서는 사후에 에이헤이지로 기탁되었고 1974년에 모두 고마자와 대학 도서관에 기탁되었다. 그러다가 1985년에 기증 처리가 되고 다쿠소쿠 문고(濯足文庫)가 생겼으며, 1987년에 목록이 완성되었다. 총 2,150권에 이른다 고 한다.

7. 사람됨

가나자와는 키가 160센티도 안 될 정도로 체구가 작았으나 굳건한 옛 무사처럼 위엄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야기할 때는 천천히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술을 좋아하여 매일같이 마셨다. 특히 독한 양주를 좋아했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서 말도 늘고 잘 웃었다.

그는 또 권련도 좋아하고 손에서 놓지 않았다. 권련을 아껴 가위로 잘라서 피웠는데 짧아지면 밑에서 못을 박고 못을 들고 끝까지 피웠다.

그리고 장어를 좋아했다. 집 근처 식당에 장어 덮밥 도시락을 하나만 시키고, 그가 장어를 안주로 술을 마신 뒤에 아내가 조미료를 묻힌 밥을 먹었다.

성격은 완고하고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이해해 주지 않아도 자기가 믿는 대로 연구를 추진하고 주장을 했을 것이다. 사표를 냈을 때도 주변에서 만류해도 듣지 않았다.

또한 사람들의 눈을 전혀 개의치 않았고, 눈에 띄는 기발한 복장으로 학교에 출근하였다. 머리에 두건을 쓰고 망토를 두른 모습 등이 학생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그러한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부딪치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였

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대체로 존경을 받고 좋은 인상을 남겼다.

젊은 시절에는 상당히 엄하게 대하기도 했지만 점점 온화해졌다. 고운 목소리로 차분차분 말하고 꼼꼼한 글씨로 천천히 판서하면서 강의를 진행하였다.

가나자와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구두쇠라고도 한다. 평소에는 지출을 아껴 두었다가 축의금이나 세뱃돈 등은 시원하게 많이 주기도 하였다. 특히 연구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사림(辭林)』과 『광사림(廣辭林)』 등의 사전이 많이 팔렸으므로 상당한 인세 수입이 있어서 그 돈으로 희귀본들을 수집하였다.

그는 언어 교육 및 연구에 인생을 바쳤으나 언어 습득의 천재였던 것은 아니다. 일본어·조선어·아이누어·영어·독일어·한문 등은 그 언어로 글을 쓰거나 그 언어에 대해 강의할 수 있는 정도였다. 또 류큐어·만주어·몽고어·범어·러시아어 등에 관해서도 필요에 따라 언급할 정도의 지식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어·러시아어·몽고어 등의 공부는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도쿄에 오래 살았으면서 평생 표준어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끝까지 오사카 말을 사용했다고 한다.

III. 가나자와 쇼자부로의 학문

이시카와(2014: 391-419)에 실린 목록을 보면 가나자와 쇼자부로의 학문적 업적은 총 306개에 이른다. 저서·번역서와 논문뿐 아니라, 편찬이나 교열, 강의록과 강연 기록, 담화 등도 포함하고, 같은 책의 복각판이나 개정 증보판도 포함하고 있으나, 엄청나게 많은 것은 틀림없다. 현재로서는 역시 이 목록을 능가할 자료는 없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아직도 누락된 자료가 있다.

가나자와는 폭넓은 연구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저작의 범위도 넓다. 많은 교과서와 사전도 편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에 그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가나자와가 혼자 저술했거나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판

단되는 저서들을 도서관, 도서관, 인터넷을 통해서 구했고, 입수한 자료는 모두 통독했다. 아래에서 그 저서들을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개관해 본다. 그의 대표적인 업적은 대체로 망라하였을 것이다.

1. 동계론

가나자와가 평생 동안 추구한 것이 일본어와 조선어의 동계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두 언어가 같은 계통일 뿐만 아니라 두 민족도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처음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난 것이 1909년에 발표한 논문 「일·한 양국어 동계론(日韓兩國語同系論)」과 1910년에 그것을 수정·보완한 책 『일·한 양국어 동계론 전(日韓兩國語同系論 全)』이다. 음운과 어법(체언, 용언, 조사)으로 나누어서 두 언어의 유사점을 고찰하였다. 대부분 여러 낱말의 어원이 같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이 글 말미에 두 언어는 그 뿌리가 같다는 것을 밝히면 서로의 언어를 학습하기 쉬워질 것이며 이리하여 또다시 하나의 언어로 동화하면 기쁜 일이라고 썼다.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한일 합방을 정당화하는 주장으로 생각되기도 하였으나, 순전히 그의 학문적 관심에서 나온 확신인 듯하다. 조선어의 고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발표된 글이므로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잘못된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 인상은 현재 동계론을 주장하는 많은 글들보다 나은 것으로 보인다.

1911년 7월 조선총독부 내무부 학무국에서 일본어와 조선어의 동계론을 주장하는 강연을 했다. 그 내용을 필기한 기록이 조선총독부에서 간행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조선총독부 월보(朝鮮總督府月報)』 제1권 제6호에 「조선어에 대하여(朝鮮語ニ就テ)」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필자는 그 기사만 발췌·제본한 자료를 도서관에서 큰돈을 주고 구입하였다.

1913년 『언어의 연구와 고대의 문화(言語の研究と古代の文化)』를 간행했다. 언어 연구를 통하여 기록도 없는 먼 옛날의 문화를 밝혀 보려는 시도로서, 가족(家族), 가옥(家屋), 도시(都市), 음식(飲食), 의복(衣服), 천지(天地),

금수(禽獸), 초목(草木), 금속(金屬)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방위를 나타내는 단어를 고찰함으로써 조선 민족은 대륙에서 반도로 내려갔고 일본 민족은 규슈에서 동쪽으로 이동했고 류큐 민족은 규슈에서 오키나와로 내려갔다고 하는 주장은 이후 저작에서도 거듭 강조하였다.

그 이론이 심화된 것이 『일·선 동조론(日鮮同祖論)』이다. 이 책은 1929년 처음 간행되었고 1943년과 1978년에 복각되었다. 필자가 구한 것은 1978년판이다. 이 책의 핵심은 제목 그대로 일본인과 조선인이 같은 조상에서 분화되었다는 주장이었다. 먼저 서설에서 “옛날 조선은 문명국이였다. 일본에서 볼 때 특히 그랬다.”라고 썼고 제1장에서 “조선은 신의 나라이다.”, “신의 나라인 조선에서 신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일본으로 도래하여 신으로 모셔졌다.”라고 썼다. 구체적으로는 신명·인명·지명과 같은 고유명사나 보통 명사의 어원을 조선어로 풀이할 수 있다고 논하였다. 다만 그는 우리의 조상들이 조선에서 일본으로 이동하였다고만 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제3장에서는 “신들이 신의 고향(高天原)에서 아시아 대륙의 조선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도래하였다.”라고 썼다. 이 책도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제목만 보고 한일 합방을 정당화하는 주장으로 오해했으나, 실제로 읽어 보면 그런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다.

2. 어원론

가나자와는 어원에 관한 책도 썼다. 일본어와 조선어의 동계론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고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였다.

1947년에 간행한 『고양이와 쥐(猫と鼠)』에서는 고양이와 쥐에 관련된 말들의 어원을 살폈다. 우선 고양이를 가리키는 중국어 ‘méng-kuei(蒙貴)’, 몽고어 ‘migui’, 조선어 ‘koi(괴)’/‘kui-ni(귀니)’/‘kona(고나)’, 일본어 ‘neko’ 등의 어원이 같으며 울음소리를 흉내 낸 말이라고 논하였다. 또 라틴어 ‘catus’, 영어 ‘cat’, 독일어 ‘Katze’, 프랑스어 ‘chat’, 러시아어 ‘Ко́т’/

‘Комка’, 아랍어 ‘qitt’, 터키어 ‘kodi’, 만주어 ‘kesike’ 등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는 장래의 연구를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쥐를 가리키는 일본어 ‘nezumi’는 ‘nusumi’[盜]와 어근이 같고 조선어 ‘chui(쥐)’는 울음소리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라틴어 ‘mus’, 영어 ‘mouse’, 독일어 ‘Maus’, 그리스어 ‘μῦς’, 범어 ‘musha’, 페르시아어 ‘mush’, 러시아어 ‘Мышь’ 등은 어원이 같지만, 라틴어 ‘ratus’, 영어 ‘rat’, 독일어 ‘Ratte’/‘Ratze’, 프랑스어 ‘rat’, 이태리어 ‘ratto’ 등의 기원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해에 간행한 『차(茶)』에서는 중국어 ‘茶/茶’의 고음 ‘ta’와 근대음 ‘cha’, 조선어 ‘ta(다)’/‘ch’a(차)’, 일본어 ‘sa’/‘cha’, 만주어 및 몽고어 ‘chai’, 러시아어 ‘chai’, 스페인어 ‘cha’, 이태리어 ‘cia’, 페르시아어 ‘ch'ai Khitai’(Khitai는 ‘중국’), 티베트어 ‘ja’, 말레이어 ‘téh’, 영어 ‘tea’, 독일어 ‘Tee’, 프랑스어 ‘thé’ 등의 어원이 같다는 것을 논하였다.

이듬해인 1948년에 간행한 『곤륜의 구슬(崑崙の玉)』에서는 구슬을 나타내는 조선어 ‘구슬’, 고구려어 ‘古斯(고사)’, 일본어 ‘kusiro’/‘kusi’, 중국어 ‘瓊支’, 만주어 ‘gu’, 몽고어 ‘has’, 위구르어 ‘hasi’ 등의 어원이 같다고 논하였다.

3. 지명 연구

가나자와는 지명에 관한 논고도 남겼다. 일본과 조선의 지명을 연구한 것도 그 속에 간직된 고어를 찾아내기 위한 작업이고 나아가서는 역시 일본어와 조선어의 동계론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먼저 1903년에 『로마자 색인 조선 지명 자휘(羅馬字索引 朝鮮地名字彙)』를 간행했다. 조선 지명을 로마자로 표기한 것이다. 지구과학자 고토 분지로(小藤文次郎)가 자신이 작성한 조선 지도용으로 원고를 준비했고, 가나자와가 한글 표기에 따라 수정하였다. 이 자료는 1985년, 1989년, 2008년에 한국에서 복각되었고, 1994년에 일본에서 복각되었다[1989년과 2008년의 복각판은 이시카와(2014)의 목록에도 없다. 필자는 인터넷에 공개된 한국학 종합 DB를 이용하였다.

1912년에는 『일·선 고대 지명의 연구(日鮮古代地名の研究)』를 간행했다. 이 책에서 논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제(百濟)’는 ‘pak-nāru’, ‘백잔(百殘)’은 ‘pak-törö’라고 읽고, ‘pak’은 ‘맥족(貊族)’, ‘nāru/nara’ 및 ‘törö/tar’은 ‘성’ 또는 ‘나라’를 뜻하므로, ‘맥족의 성’ 즉 ‘맥족의 나라’를 가리킨다. ‘단(檀)’의 새김이 ‘박달(나무)’이므로 ‘단군(檀君)’도 ‘맥족’ 출신이다. ‘신라(新羅)’의 시조 ‘박(朴)’ 씨도 마찬가지다. ‘고구려(高句麗)’의 ‘고’는 ‘pak’의 앞쪽이 생략된 것이고 ‘구려’는 ‘성’을 뜻하므로, 역시 ‘맥족의 성’, 즉 ‘맥족의 나라’를 가리킨다. 따라서 세 종족 모두 맥족이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일본어 ‘hure’는 조선어 ‘pör(벌)’(마을)과 관련이 있고 일본어 ‘kohori’는 조선어 ‘kor(골)’(큰 마을)과 관련이 있다. 이것을 보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옛날부터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 1949년에 『지명의 연구(地名の研究)』를 간행했다. 한자의 음을 이용한 지명, 통음음을 이용한 지명, 훈을 이용한 지명, 말놀이를 이용한 지명, 훈독자를 음독하는 지명, 음독자를 훈독하는 지명, 음과 훈을 혼용한 지명 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고찰하였다.

그리고 가나자와가 별세한 후 『일·한 고지명의 연구(日韓古地名の研究)』가 1985년에 간행되고 1994년에 복각되었다. 필자가 구한 것은 1985년판이다. 지명과 관련된 가나자와의 논고를 묶은 것으로, 제1부에는 소논문들, 제2부에는 『일·선 동조론(日鮮同祖論)』의 4~10장, 제3부에는 『지명의 연구(地名の研究)』를 실었다.

4. 일본어 관련

가나자와는 일본어와 관련된 업적도 많다. 다만 그의 저작은 단순히 일본어에 대해서만 논하지 않고 조선어와 비교하는 내용이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다. 그는 일본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선어를 알아야 하고 또 조선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만주어와 몽고어를 알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1903년에 『일본 문법론 전(日本文法論 全)』을 간행했다. 그해 가을에 국

어전습소(國語傳習所)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오쓰키 후미히코(大槻文彦)의 『광일본문전(廣日本文典)』에 기대면서도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면서 보완하였다. 문자론, 성음론, 단어론, 문장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어의 동사와 형용사는 현재 활용 형태가 다르지만 원래는 똑같은 활용을 했었을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용언은 ‘ari’(있다)일 것이다, 화가(和歌)에서 습관적으로 쓰이는 수식어 ‘枕詞’는 동음이의어를 구별하기 위해 쓰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계조사(係助詞)와 문말 용언 활용형이 호응하는 ‘掛結’의 기원은 문장의 도치에 있다 등이 특기할 만한 주장이다.

1905~1906년 와세다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일본 문법 강의(日本文法講義)』는 1906년에 간행되고 1911년에 복각되었다. 필자도 입수하였으나 출판년도가 찍혀 있지 않아서 몇 년판인지 알 수 없다. 총론, 단어론, 문장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자, 이두, 한글 등의 문자, 오십음도(五十音圖)와 범자의 배열, 일본어와 조선어의 문법을 관련시켜서 설명한 부분 따위가 독특하다 하겠다.

1910년 『국어의 연구(國語の研究)』를 간행했다. 그동안 발표한 논문들을 묶은 것이다. 문자론, 문법론, 어원론, 계통론 등에 관한 다양한 논문들이 실려 있다. 주요한 논점은 다른 책 속에 알기 쉬운 형태로 녹아들어 있지만 각각 논제에 대한 자세한 고찰을 볼 수 있다.

1912년에 『일본 문법 신론(日本文法新論)』을 간행했다. 위에서 소개한 1903년 『일본 문법론 전(日本文法論 全)』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전체 구성은 똑같지만 약 10년 사이에 진척된 연구 성과가 반영되었다. 특히 일본어와 조선어를 비교한 내용이 많이 추가되었으며 분량도 40% 정도 증가되었다.

또 1923년에 『국어학 통론(國語學通論)』을 간행했다. 총론, 음운 조직, 단어 구조, 가나 사용법, 문법 연구, 문법상 오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문자와 음운에 관한 설명이 붙어 있다. 본론에서도 일본어와 조선어를 관련시킨 논의가 보이지만 무엇보다 부록 부분에 가나자와의 독자적인 주장이 많이 담겨 있다.

5. 아이누 관련

가나자와는 처음 아이누어 전공자로 출발했으므로 아이누와 관련된 저작도 여럿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 1898년에 스승 진보 고토라와 공저로 펴낸 『아이누어 회화 사전(アイヌ語會話字典)』이다. 일본어-아이누어 사전인데, 일본어에 대응되는 아이누어의 단어를 로마자로 표기한 뒤에 그 단어를 사용한 간단한 회화체 예문을 들었다. 서문에 따르면 가나자와가 원고를 작성하고 진보가 조언을 해 주었으므로 두 사람의 공저로 냈다고 한다. 진보는 이 사전을 접함으로써 아이누어 연구를 뜻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면 우에다 가즈토시가 도쿄 제국대학에서 아이누어를 가르치게 한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 가나자와는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은사인 우에다가 귀중한 조언을 해 주었다고 감사의 인사말을 적었다. 이 책은 1973년, 1978년, 1986년에 세 번이나 복각되었다. 그만큼 수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이다. 필자가 구한 책은 1986년판이다.

1920년 『언어에 반영된 원인의 사상(言語に映じたる原人の思想)』을 간행했다. 아이누어 연구를 통하여 아이누 민족의 사상을 고찰한 책으로, 우주관(宇宙觀), 생사관(生死觀), 인생관(人生觀), 이인종관(異人種觀), 방위(方位), 가족(家族), 의식(衣食), 수사(數詞)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에 따르면 ‘아이누’는 ‘사고력이 있는 자’라는 뜻이다. 이 책은 1941년에 복각되었다. 필자가 구한 책은 1941년판이다.

6. 문헌 안내

가나자와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동양 언어 연구를 위한 문헌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목록을 작성하여 후학들에게 소개하였다.

첫 번째 목록은 1911에 간행한 『조선 서적 목록(朝鮮書籍目錄)』이다. 도쿄 외국어학교 졸업식 때 조선에 관한 문헌 자료를 일반 공개하면서 자비로 해설집을 만들어 관람자들에게 배부해 준 것이다. 108가지 자료의 저자, 성

립 시기, 성립 과정, 내용 등을 소개하고 사진을 실었다. 이 자료는 1976년에 한국에서 복각되었다. 필자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원본을 열람하였다.

두 번째 목록은 1933년에 간행한 『다쿠소쿠안 장서 61종(濯足庵藏書六十一種)』이다. 가나자와가 그동안 모아 놓은 귀중한 동양 어학 문헌을 소개한 책이고, 그의 환갑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간행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다쿠소쿠(濯足)는 그의 호이다. 61가지 자료의 저자, 성립 시기, 성립 과정, 내용, 그가 입수한 경위 등을 소개하고 사진을 실었다. 61가지로 정한 것은 환갑 기념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목록은 1948년에 간행한 『아세아에 관한 문헌(亞細亞研究に關する文獻)』이다. 역시 가나자와가 그동안 모아 놓은 귀중한 동양 어학 문헌을 소개한 책이고, 자료의 저자, 성립 시기, 성립 과정, 내용, 그가 입수한 경위 등을 소개하고 사진을 실었다. 자신의 회수 기념으로 하기 위하여 77가지 자료를 선정하였으나, 더 소개하고 싶은 자료가 있어서 번외로 두었다. 필자가 구한 고서에는 가나자와가 직접 지인에게 쓴 글이 적혀 있다.

7. 기타

가나자와는 이상의 분류에 넣기 힘든 다양한 저작도 남겼다.

1912년 『일어유해(日語類解)』를 간행했다. 이는 『왜어유해(倭語類解)』를 바탕으로 한 어휘집인데, 약간 취사선택을 하고 번역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왜어유해』는 저자도 성립 연대도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통신사가 1636년 이후에 제작한 것은 분명하다.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의 『교린수지(交隣須知)』도 이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또 영국 선교사 W. H. Medhurst가 이것을 번역하여 1835년에 *Translation of a Comparative Vocabulary of the Chinese Korean and Japanese Language*를 간행했다. 서양에서는 이것이 조선어 연구의 기초가 되었으며, 프랑스 선교사들이 한불사전이나 문법서를 만들었다. 가나자와는 조선인이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인이 조선어를 배우는데 유용한 책이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이 책은 1970년 300부 한정으로 복

각 · 출판된 『아학편(兒學編) · 일어유해(日語類解) · 한어 초보(韓語初步)』에 수록되었다. 필자가 구한 것은 이 복각판이다.

1947년에 『문과 자(文と字)』를 간행하였다. ‘한자 잡고(漢字雜考)’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듯이 한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피력한 것으로, 아시아 연구는 한자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아세아 연구 총서 중 한 권이며, 본래 계획으로는 그 뒤에 『육서의 연구(六書の研究)』, 『안학과 이학(眼學と耳學)』, 『유형자와 반형자(類形字と反形字)』, 『속자와 신자(俗字と新字)』, 『한자를 통해 본 고대 문화(漢字を通じて觀たる古代文化)』 등 한자와 관련된 책들을 간행하려고 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그 이외에도 한글과 이두에 관한 책이나 일본어 · 조선어 · 만주어 · 몽고어 비교 언어학에 관한 책 등도 기획되어 있었지만 역시 실현되지 않았다.

IV. 나오기

이상에서 가나자와 쇼자부로의 생애와 학문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어떤 한 사람의 생애와 학문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가나자와 쇼자부로와 같이 96년 이상의 세월을 살고 평생 동안 오로지 언어의 교육과 연구에 매진한 사람의 생애와 학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가나자와 쇼자부로의 생애와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와 똑같이 여러 언어에 능통해야 할 것이고 그가 남긴 수많은 저작과 그가 접한 자료들을 섭렵해야 할 것이며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들도 모아 보아야 할 것이다.

가나자와 쇼자부로에 일 · 한 양국어 동계론(日韓兩國語同系論)과 일 · 선 동조론(日鮮同祖論)이라는 이론 때문에 오랫동안 오해와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시카와(2007, 2014) 등 실증적이고 대대적으로 재조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도 그 두 저작에 기댄 바가 크다.

이러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앞으로 이 대학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다.

참고문헌

-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1903), 《日本文法論 全》, 金港堂書籍.
-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1906/1911), 《日本文法講義》, 早稻田大學出版部.
-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1909), 日韓兩國語同系論, 《東洋協會調查部學術報告》 1, 東洋協會調查部.
-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1910a), 《日韓兩國語同系論 全》, 三省堂書店.
-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1910b), 《國語の研究》, 同文館.
-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1911a/1976), 《朝鮮書籍目錄》, 私家版/成進文化社.
-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1911b), 朝鮮語ニ就テ, 《朝鮮總督府月報》 1-6, 朝鮮總督府.
-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1912a), 《日語類解》, 三省堂書店(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 編(1970), 《兒學編・日語類解・韓語初步》, 京都大學國文學會).
-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1912b), 《日鮮古代地名の研究》, 朝鮮總督府.
-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1912c), 《日本文法新論》, 早稻田大學出版部.
-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1913), 《言語の研究と古代の文化》, 弘道館.
-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1920/1941), 《言語に映じたる原人の思想》, 大鐙閣/創元社.
-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1923), 《國語學通論》, 早稻田大學出版部.
-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1929/1943/1978), 《日鮮同祖論》, 刀江書院/汎東洋社/成甲書房.
-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1933), 《濯足庵藏書六十一種》, 金澤博士還曆祝賀會.
-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1947a), 《猫と鼠》, 創元社.
-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1947b), 《茶》, 創元社.
-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1947c), 《文と字》, 創元社.
-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1948a), 《崑崙の玉》, 創元社.
-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1948b), 《亞細亞研究に關する文獻》, 創元社.
-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1949c), 《地名の研究》, 創元社.

-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1985/1994), 《日韓古地名の研究》, 草風館.
- 고토 분지로(小藤文次郎) ·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1903), 《羅馬字索引 朝鮮地名字彙》, 東京帝國大學.
- 이시카와 료코(石川遼子)(2007), 金澤庄三郎, 《日本近現代朝鮮語教育史》, 龍史堂(ドラゴン印刷).
- 이시카와 료코(石川遼子)(2014), 《金澤庄三郎》, ミネルヴァ書房.
- 진보 고토라(神保小虎) ·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1898/1973/1978/1986), 《アイヌ語會話字典》, 金港堂書籍/北海道出版企劃センター.